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

Coping styles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of Multi-Family Housing Dwellers

노세희*

김미희**

Noh, Se-Hee

Kim, Mi-Hee

Abstract

Rapid social change affects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is in turn creates new stimuli to which people have to adapt. These stimuli have been seen to increase stress levels. Therefore, dwellers in these environments try to reduce stress through various meth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1) identify the general trends of coping styles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2) analyze the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uildings affect stress, find out how personal backgrounds affect stress levels and the ability to get rid of environmental-related stress. The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people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in Gwang-ju. The city is divided into 5 districts and used quota sampling. 324 housewives were surveyed from the households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December, 2006, after the questionnaire was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liminary survey. After all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data was cod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12.0 program.

Keyword : Coping Styles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Housing Adaptation, Housing Adjustment.

주요어 :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 주거적응, 주거조절.

1. 서론

대처(coping)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스트레스원과 긴장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가족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행동유형을 대처전략이라고 한다(정현숙·유계숙, 2001). 이러한 대처과정을 통하여 거주자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불러오는 환경조건들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현실에 적응하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Fleisman(1984)은 대처를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반응”으로 규정하였고, Lazarus와 Folkman(1984)는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자원에 부담이 된다고 평가되는 특수한 내·외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행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하였다.

Speare(1974)의 주거조절이론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주거조절행위가 적극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가족원의 원활한 주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시설 및 공간의 부족은 주거불만의 정도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곧 적극적인 주거조절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Morris & Winter, 1975; Rossi, 1980).

Morris & Winter(1978)는 가족 구성원은 규범의 관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평가하며, 이상적인 주거 규범과 현실 사이에 주거 결손(housing deficits)을 인지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러한 주거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주거조정(housing adjustment)’이나 ‘주거적응(housing adaptation)’의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처방식은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주거이동, 주거개조와 증축은 ‘주거조정태도’를 나타내고, 규범적 가족 적응, 구조적 가족 적응은 ‘주거적응태도’이다. (이경희·윤정숙·홍형욱, 2002). Priemus(1986)은 한 가정을 의사결정단위로 고려하여 주거현황 이미지(picture of the situation)와 주거요구 이미지(aspiration picture)간의 차이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비용과 유용성을 고려하여 주거적응을 실행하게 된다고 하였다(장한두·체해성, 2005). 본 논문에서는 Morris & Winter(1975)의 주거조절이론과 Priemus(1986)의 이론을 사용하여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주거적응과 주거조정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거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 자체가 물리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가족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주거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대처 행동은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가족의 대처 능력에 따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정교수, 이학박사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대처능력이 미약한 가족은 누적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경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배경특성 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거주자의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거주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표집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거주자 중 주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를 행정구역상의 동구,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의 다섯층으로 나누어 층화표집한 후, 각 구에 분포한 아파트 단지 수와 세대수를 참고로 하여 동구 14부¹⁾, 서구 96부, 남구 50부, 북구 135부, 광산구 105부를 할당표집 하였다.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광주광역시 아파트 거주자 중 주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회수된 362부 중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 38부를 제외하여 324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와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PC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였으며, 배경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거주자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1)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거주자 대처방식

대처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Morris & Winter(1978), Priemus(1986), 광인숙(1992)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안전성(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보건성(공해, 위생), 편리성(복리시설, 교육시설, 주거공간, 유지관리, 이동), 쾌적성(이웃친밀, 개방성, 조경시설, 심미성)의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소 각각에 대하여 불만족스럽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낮추어 견디거나 그대로 참고 사용하는 태도, 주거 적응행동으로서 가족의 분가, 합가, 출산 지연, 출산 기대 등 가족 구성을 변경하는 구성적 적응태도,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의 집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거 조정으로서 리모델링 및 개조 행동, 이사 등 4개의 범주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광주광역시 아파트 세대수는 총287,466(2006년 12월;www.gwangju.go.kr)이며 이중 동구 도심지역으로 충장로와 금남로 등 상업지구와 중심업무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전체의 3.51%에 해당하는 10,078세대가 거주한다. 따라서 총 표집수 400개 중 3.51%에 해당하는 14세대가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인	구분	f(%)	변인	구분	f(%)
취업 여부	미취업	168(51.9)	가족 생활 주기	독립기	18(5.6)
	취업	156(48.1)		가족형성기	58(17.9)
	합계	324(100.0)		자녀교육기	100(30.9)
				자녀성년기	85(26.2)
		자녀결혼기		32(9.9)	
월소득 수준	270만원 이하	80(24.7)	노년기	31(9.6)	
	271~380만원	90(27.8)	동거 가족수	1명	20(6.2)
	381~650만원	122(37.7)		2명	47(14.5)
	651만원 이상	32(9.9)		3~4명	209(64.5)
	합계	324(100.0)		5명 이상	48(14.9)
평균	3,927,000	합계		324(100.0)	
본인 연령	30대 이하	104(32.1)	평균	3.52명	
	40대	116(35.8)	배우자 연령†	30대 이하	56(17.3)
	50대 이상	104(32.1)		40대	110(34.0)
	합계	324(100.0)		50대 이상	158(48.8)
평균	45.13세	합계		294(100.0)	
		평균		48.33세	
본인 학력	중졸이하	30(9.2)	배우자 학력‡	중졸이하	7(2.4)
	고졸	128(39.5)		고졸	61(20.7)
	전문대졸	51(15.7)		전문대졸	39(13.3)
	4년대졸	90(27.8)		4년대졸	147(50.0)
	대학원 이상	25(7.7)		대학원 이상	40(13.6)
합계	324(100.0)	합계	294(100.0)		

† 표시된 항목의 퍼센트는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퍼센트임
 * 2006년 4/4분기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도시 가계 소득(평균소득 : 316만 8천원)의 분위별 평균 월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재구성
 ‡ 표시된 항목의 퍼센트는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퍼센트임

2) 조사대상자 주택의 물리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호의 배치, 주택의 향, 소유형태, 주택규모, 주거층수, 거주기간, 건축경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변인	구분	f(%)	변인	구분	f(%)
주호 배치	계단식	284(87.7)	주택 소유	자가	281(86.7)
	복도식	40(12.3)		임대	43(13.3)
	합계	324(100.0)		합계	324(100.0)
주거 층수	5층 이하(저층)	93(28.7)	주택 향	남향	257(79.3)
	6~10층(중층)	109(33.6)		동향	51(15.7)
	11층 이상(고층)	122(37.7)		서향	10(3.1)
	합계	324(100.0)		기타	6(1.9)
		합계		324(100.0)	
주택 규모	27평 미만	80(24.7)	건축 경년	6년 이하	81(25.0)
	27~35평	171(52.8)		6~10년	109(33.6)
	35평 초과	73(22.5)		10~14년	59(18.2)
	합계	324(100.0)		14년 이상	79(23.1)
	평균	32.93평		합계	324(100.0)
		평균	10.01년		

* 한국토지공사(1993)의 “지역 특성별 인구 및 주택계획지표 연구”에 의거
 ** 대한주택공사(http://www.jugong.co.kr) 공공분양 주택 및 민영 주택 전용면적 기준(원형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기준을 비롯한 각종 주택관련 제도)에 의거하여 전용면적 60㎡ 미만(분양면적 27평 미만)은 소형, 60~85㎡(27~35평)은 중형, 85㎡ 초과(35평 초과)는 대형 아파트로 분류함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1.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일반적 경향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가 취하는 태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참고 산다/가족 구성 변경/리모델링·개조/이사의 대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참고 산

다(무행동)'와 '구조적 변경'은 주거적응태도, '리모델링·개조'와 '이사'는 주거조정태도로 분류하였다.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응답자의 47.2%, 안전사고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46.6%, 자연재해에 대한 스트레스는 75.9%가 각각 '이사'를 선택하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는 '참고 산다'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사' 또한 42.6%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에 관한 스트레스에서는 주거조정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안전성에서의 결함은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공해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응답자의 59.3%가 '이사'를 선택하였고, '참고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31.8%로 조사되었다.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이사'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4.6%를 차지하였고, '참고 산다'와 '리모델링·개조'는 각각 22.8%와 21.9%로 나타났다. 보건성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리적 건강 유지와 환경 위생을 위한 조건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거주자의 건강과 보건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이어나 리모델링/개조와 같은 주거조정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복리시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59%가 '참고 산다'고 한 것과 다르게,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66.4%가 '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시설 스트레스는 이사의 원인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주거공간의 결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57.7%가 '리모델링/개조'를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과 개조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보다는 기존 환경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심리적 적응 부담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8.4%가 '참고 산다'고 응답하여 주거공간에서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참고 견디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이나 스트레스는 잠시 참는다고 사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과정부터 거주자의 주거욕구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택의 유지관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42.9%는 '참고 산다'를, 42.0%는 '이사'를 선택하였으며, '주택으로 출입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낄 때'는 62.0%가 '참고 산다'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거주자의 소득이나 경제력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웃친밀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70.1%가 '참고 산다'라고 응답하였고, '주택의 조망·전망이 나쁘고 외부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경우'에는 40.4%가 '리모델링/개조'를 선택하였다. 이는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간단한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조정시설'과 '심미성'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참고 산다'를 선택하여 주거욕구의 상위단계인 쾌적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소극적인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중 분가나 합가, 출산지연 등 가족 구성원을 변경하는 대처방식 유형인 주거적응으로서 구조적 변경을 선택하는 사람은 미미했으나,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대처방식으로 구조적 변경을 선택한 경우는 14.5%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해당 자녀만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배경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거주자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는 배경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을 χ^2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만 추출하여,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있어 주거적응태도 집단과 주거조정태도 집단으로 판별하는데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²⁾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χ^2 검증에서 유의한

[표 3] 아파트 거주자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의 일반적 경향

	대처방식	주거적응태도f(%)				주거조정태도f(%)			
		참고산다	구조적변경	리모델링	이사	참고산다	구조적변경	리모델링	이사
범죄	현재 주택이 범죄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안전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느낄 경우	103(31.8)	11(3.4)	57(17.6)	153(47.2)				
안전성	안전사고	주택의 내부구조, 노후화, 시공 상태 등으로 주거 내부공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느낄 때	58(17.9)	8(2.5)	107(33.0)	151(46.6)			
	자연재해	수해나 건물 붕괴 등 자연 재해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45(13.9)	6(1.9)	27(8.3)	246(75.9)			
보건의성	교통사고	보도, 자전거 도로, 차도 등을 이용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경우	151(46.6)	8(2.5)	27(8.3)	138(42.6)			
	공해	물-대기오염, 소음 등 공해에 노출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103(31.8)	3(0.9)	26(8.0)	192(59.3)			
편리성	위생	일조, 채광, 환기, 통풍,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상태 등 주거환경이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74(22.8)	2(0.6)	71(21.9)	177(54.6)			
	복리시설	문화의료·공공시설 이용 불편이나 주차공간의 부족 등 생활 관련 시설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191(59.0)	9(2.8)	27(8.3)	97(29.9)			
쾌적성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의 환경이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될 경우	47(14.5)	47(14.5)	15(4.6)	215(66.4)			
	주거공간	주거내부 공간(규모, 실의 크기와 배치, 수납공간, 작업대 배치 등)의 결함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경우	92(28.4)	9(2.8)	187(57.7)	36(11.1)			
이웃친밀	유지관리	주택의 유지관리비, 가격, 투자가치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139(42.9)	11(3.4)	38(11.7)	136(42.0)			
	이동	주택으로의 출입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때	201(62.0)	4(1.2)	28(8.6)	91(28.1)			
쾌적성	이웃친밀	이웃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제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227(70.1)	8(2.5)	24(7.4)	65(20.1)			
	개방성	주택의 조망이나 전망이 나쁘고, 외부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고 느낄 때	79(24.4)	2(0.6)	131(40.4)	112(34.6)			
조경시설	조경시설	주변에 근린공원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놀이터, 휴게공간 등이 결여되어 있을 때	226(69.8)	7(2.2)	33(10.2)	58(17.9)			
	심미성	주택 외관이나 색상, 내부 마감 등이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경우	165(50.9)	4(1.2)	118(36.4)	37(11.4)			

차이를 보인 주부의 취업 여부, 종교, 주부연령, 남편연령³⁾, 가족생활주기, 주부학력, 월소득, 남편직업⁴⁾, 건축경년 변인과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주거조정태도’를 갖는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약 2배정도 높으며,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조정태도’보다 ‘주거적응태도’를 보이는 집단일 가능성이 약 0.9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진입된 변수는 남편연령, 주부학력, 동거가족원 수, 건축경년, 안전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으로 이중 ‘남편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귀모형은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연령, 주부학력, 남편학력, 월소득, 주택규모, 건축경년, 자연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남편연령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방식인 ‘주거적응’을 취할 가능성이 약 0.9배 증가하였고,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주거적응’보다 적극적 대처인 ‘주거조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약 1.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남편연령, 주부학력, 남편학력, 건축경년, 공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건축경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경년이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적극적 대처보다 ‘주거적응태도’를 취할 확률이 약 0.99배 증가하였다.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종교유무와 남편학력, 그리고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남편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인 ‘주거조정’을 선택하며, ‘주거적응’보다 ‘주거조정’을 하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약 2.1배 증가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회귀식을 위해 진입된 독립변수는 남편연령, 주부학력,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며, 그 결과 남편연령이 많아질수록 거주자들을 “참고살기/가족의 구조적 변경”과 같은 ‘주거적응행동’ 취할 가능성이 ‘주거조정행동’을 할 확률보다 약 0.6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남편의 연령이 높은 집단은 가족생활주기 중 자녀성년기나 결혼기 혹은 노년기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주로 소극적인 대처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공간에 대한 편리성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부연령과 주부학력, 건축경년, 주거공간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부학력’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적응’보다 ‘주거조정’을 취할 확률이 약 2.23배 높게 나타난다. 조경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을 구성하기 위해 주부학력과 가족생활주기, 조경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생활주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단계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우에 조경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주거조정태도보다 소극적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약 0.7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거주자의 배경특성 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관련 변인보다 배경특성 변인 중 남편 관련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이 높은 집단은 소극적 대처태도인 주거적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주택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 모든 측면에서 가족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사나 리모델링/개조와 같은 행동은 가장인 남편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주부 관련 변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경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단계에 해당하는 가족은 가장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소득과 권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더 만족한 주택에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고살기나 가족의 구조적 적응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간과 배치에 만족할 뿐 아니라 주택이란 가족을 위한 가장 안전한 공간이므로 가족의 생활개선을 위해 유일한 안전수단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지는 않았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아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하위항목에 대해 거주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거주자가 희망하는 대처방식은 주거조정행동이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적응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요약하면 첫째, 거주자의 대처유형을 주거적응과 주거조정으로 측정된 결과, 인간의 생존적 요소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보건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거주자는 주로 리모델링이나 개조, 이사와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인 ‘주거조정’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는 편리성이나 쾌적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처에 해당하는 ‘주거적응’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통사고, 복리시설, 유지관리, 이동, 이웃친밀, 개방성, 심미성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대한 적합성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3) 주부연령과 남편연령, 가족생활주기는 상관분석 결과 상관이 높게 나타나 세 변인 중 ‘남편연령’ 변인만 사용함.

4) 직업 관련 변인은 회귀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함.

[표 4]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 구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인	B	S.E.	Wald	Sig.	Exp(B)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합성 검증	
범 죄	주부취업여부	-0.051	0.315	0.027	0.871	0.950	Concordant ⁵⁾ 69.4%
	종교유무	0.713	0.269	7.049	0.008	2.041	-2 Log likelihood ⁶⁾ 339.056
	남편연령	-0.063	0.017	13.449	0.000	0.939	Model $\chi^2$⁷⁾ 37.926(df=7, sig= .000)
	월소득 수준	0.001	0.001	1.930	0.165	1.001	Nagelkerke R ² .121
	주부학력	0.018	0.138	0.017	0.898	1.018	Hosmer & Lemeshow χ^2 ⁸⁾ 6.949(df=8, sig= .542)
	건축경년	-0.003	0.002	1.717	0.190	0.997	
안 전 사 고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	-0.053	0.152	0.124	0.725	0.948	Concordant 81.6%
	상수	3.361	1.240	7.344	0.007	28.827	-2 Log likelihood 269.657
	동거 가족수	0.344	0.277	1.547	0.214	1.410	Model χ^2 27.874(df=5, sig= .000)
	남편연령	-0.052	0.018	8.191	0.004	0.950	Nagelkerke R ² .090
	주부학력	0.194	0.162	1.437	0.231	1.214	Hosmer & Lemeshow χ^2 3.007(df=8, sig= .934)
	건축경년	-0.004	0.003	2.308	0.129	0.996	
자 연 재 해	안전사고 스트레스	-0.156	0.200	0.609	0.435	0.856	Concordant 84.7%
	상수	3.714	1.560	5.670	0.017	41.015	-2 Log likelihood 212.654
	주부 취업여부	-0.035	0.452	0.006	0.938	0.965	Model χ^2 42.395(df=8, sig= .000)
	남편연령	-0.102	0.023	19.581	0.000	0.903	Nagelkerke R ² .134
	주부학력	-0.004	0.220	0.000	0.985	0.996	Hosmer & Lemeshow χ^2 4.356(df=8, sig= .824)
	남편학력	0.060	0.194	0.096	0.756	1.062	
공 해	월소득 수준	0.000	0.001	0.030	0.863	1.000	Concordant 76.5%
	주택의 규모	0.081	0.033	6.182	0.013	1.084	-2 Log likelihood 357.495
	건축경년	0.000	0.003	0.009	0.923	1.000	Model χ^2 15.374(df=5, sig= .009)
	자연재해 스트레스	-0.291	0.218	1.779	0.182	0.748	Nagelkerke R ² .051
	상수	4.771	1.733	7.579	0.006	118.014	Hosmer & Lemeshow χ^2 6.108(df=8, sig= .635)
	남편연령	-0.317	0.205	2.394	0.122	0.728	
위 생	주부학력	0.207	0.329	0.398	0.528	1.230	Concordant 71.4%
	남편학력	0.319	0.332	0.926	0.336	1.376	-2 Log likelihood 338.244
	건축경년	-0.005	0.002	4.520	0.033	0.995	Model χ^2 9.259(df=3, sig= .026)
	공해에 대한 스트레스	0.096	0.151	0.404	0.525	1.101	Nagelkerke R ² .031
	상수	1.392	0.778	3.200	0.074	4.024	Hosmer & Lemeshow χ^2 3.855(df=8, sig= .870)
	남편학력	0.749	0.306	5.982	0.014	2.116	
교 육 시 설	종교유무	0.422	0.283	2.223	0.136	1.525	Concordant 68.8%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	-0.110	0.181	0.371	0.542	0.895	-2 Log likelihood 387.362
	상수	0.673	0.582	1.334	0.248	1.959	Model χ^2 14.707(df=4, sig= .005)
	남편연령	-0.500	0.220	5.158	0.023	0.607	Nagelkerke R ² .045
	주부학력	0.282	0.311	0.820	0.365	1.325	Hosmer & Lemeshow χ^2 6.082(df=8, sig= .638)
	교육시설 스트레스	0.146	0.141	1.065	0.302	1.157	
주 거 공 간	상수	1.563	0.734	4.534	0.033	4.773	Concordant 71.9%
	주부연령	-0.133	0.179	0.556	0.456	0.875	-2 Log likelihood 375.893
	주부학력	0.801	0.287	7.786	0.005	2.228	Model χ^2 8.868(df=3, sig= .031)
	건축경년	0.002	0.002	1.271	0.260	1.002	Nagelkerke R ² .027
	주거공간 스트레스	0.016	0.156	0.011	0.917	1.016	Hosmer & Lemeshow χ^2 10.652(df=8, sig= .222)
	상수	0.346	0.638	0.294	0.588	1.414	
조 경 시 설	주부학력	-0.023	0.130	0.031	0.860	0.977	Concordant 71.9%
	가족생활주기	-0.369	0.146	6.335	0.012	0.692	-2 Log likelihood 375.893
	조경시설 스트레스	0.032	0.132	0.060	0.806	1.033	Model χ^2 8.868(df=3, sig= .031)
	상수	-0.104	0.777	0.018	0.894	0.901	Nagelkerke R ² .027

주) 대처방식 - 0: 주거적응태도, 1: 주거조정태도
 주부취업여부 - 0: 미취업 주부, 1: 취업주부 // 종교유무 - 0: 없음, 1: 있음
 가족생활주기 - 0: 독립기/가족형성기/자녀교육기, 1: 자녀성년기/자녀결혼기/노년기

5) 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분류의 정확도

6) 일반적으로 Log likelihood의 절대값이 감소할수록 그 모형의 적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Log likelihood의 절대값은 감소하게 되므로 Log likelihood의 절대값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나의 예측변수가 모형에 더해졌을 때 얻어지는 Log likelihood값의 절대값의 감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큰 값이 나타나거나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포함관계에 있는 두 모형에서 척도편차가 카이 제곱의 분포를 따른다는 발견에 기초한다.

7) Model χ^2 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로 이 회귀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인 배경특성 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 변인들은 종속변수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모델로 회귀식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8) Hosmer & Lemeshow χ^2 값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값으로 유의확률(.542 > α = .05)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둘째, 카이검정을 통해 배경특성 변인에 따른 거주자 대처방식 유형에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과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공해, 위생, 복리시설, 교육시설, 주거공간, 유지관리, 이동성, 이웃친밀, 개방성, 조경시설, 심미성 각각의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배경특성 변인과 각각의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대처방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 안전사고, 교통사고, 공해, 위생, 교육시설, 주거공간, 조경시설 스트레스에 대해 의미 있는 회귀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관련 변인보다 거주자 배경특성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이 높은 집단은 소극적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보였으며, 주거공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주부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경시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가족생활주기의 후기 단계에 있는 가족일수록 소극적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보였으며, 공해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건축경년이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주거적응태도를 보였다. 위생에 대한 대처방식에는 남편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인 주거조정태도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지역적 표집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 표집으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 수집 과정에서 부실기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누락에 대한 고려와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거주자 개개인이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들에 해당하는 지적인 자원들, 지식 또는 과거 경험 그리고 동기 등과 구체적인 자극 상황의 인지적인 측면들에 해당하는 자극에 대한 통제, 자극에 대한 예언력, 그리고 자극의 즉시성 또는 충격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거주자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거주자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통제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주거환경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상황이나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한 질적 지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조사의 대상을 거주자 중 주부로 한정하였으나, 가족 구성원 각각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대처방안도 다를 것이므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아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모든 하위항목에 대해 거주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거주자가 희망하는 대처방식은 주거조정행동이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적응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주거생활에서 거주자의 대처태도가 결국 실제 대처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할 때, 거주자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하는 대처행동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력을 설명하여 미래의 대처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거주자의 대처행동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인지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락과 안녕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자극들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병서 외(2005), 한글 SPSS 12K 사회과학 통계분석, SPSS 아카데미
2. 박인숙(1992),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이경희·윤정숙·홍형욱(2002), 주거학개설, 문운당
4. 장한두·제해성(2005), 아파트 주민의 주거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소규모 단위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 353~362
5.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신정
6. Morris, E.W. & Winter, M.(1975),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7, No. 1, p79~88
7. Morris, E.W.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 John Wiley and Sons
8. Priemus, H.(1986), Housing as a social adaptation process : a conceptual schem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8, No. 1, p31~52
9. Speare(1974),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Vol. 11, No. 2, p173~188